

1일 Market Index	
코스피 8303.41 (-173.07)	코스닥 929.35 (+13.17)
금리 (연이자율) 3.791 (+0.088)	환율 (원/달러) 1555.65 (+6.25)

# metro® 경제

HS호성  
첨단소재·AI 중심  
포트폴리오 확장  
04



202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7월 2일 목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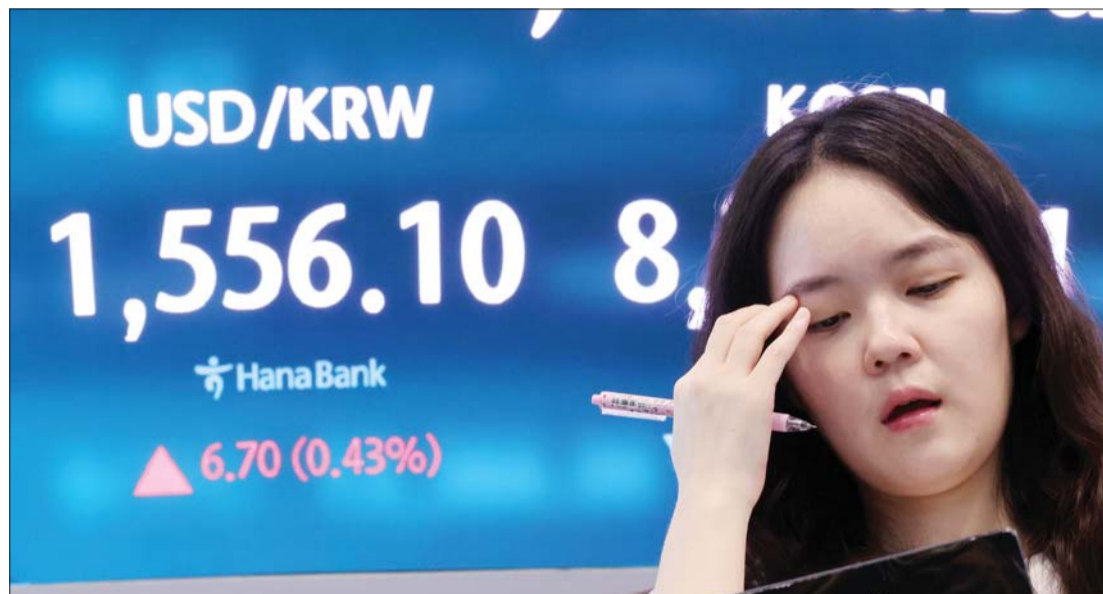
## “당장 계약” 동탄·기흥, 막차수요 러시

**경기 남부 3곳 ‘3중 규제’**  
구리 주택동 일대 ‘관망세’  
“규제 발표 후 문의 싹 끊겨”  
상승폭 적은 외곽선 불만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와 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꺼번에 묶자 부동산 시장 현상은 혼란스런 분위기다. 동탄과 기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생(7월5일)하기 전에 계약을 진행하려는 ‘막차 수요’가 몰렸다. 반면 구리 주택동 일대에서는 발표 직후 매수 문의가 끊기는 등 지역별 온도차가 감지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동탄, 기흥, 구리 등 경기 남부 3곳을 ‘3중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투기와 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과 세제 규제가 강화되고, 토허구역에서는 실거주 요건이 붙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려워진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누적 아파트 값 상승률은 화성 동탄구가 11.38%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환율 17년여 만에 최고** 원·달러 마감 환율이 17년 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하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8476.48)보다 173.07포인트(2.04%) 내린 8303.41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916.18)보다 13.17포인트(1.44%) 상승한 929.35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549.4원)보다 5.5원 오른 1554.9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구리시는 7.87%, 용인 기흥구는 6.21% 올랐다. 단기간 집값이 급등했던 곳이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동탄역 인근에서는 규제 시행 전 매물을 정리하거나 투자성 매물을 찾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동탄역시범우남퍼스트빌아파트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업소 대표는 1일 “조금 더 싸게 내놓더라도 매도하려는 사람이 있었고, ‘세 안고’ 살 수 있는 물건을 찾아달라는 문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개업소 커뮤니티에서는 당장 계약 가능한 투자 물건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들고 있다”며 “토허제로 묶인 이후에는 실수요자들이 시장을 관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용인시 기흥구 일대 중개업소도 발표 직후 문의가 늘었다. 기흥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동탄이 많이 오르다 보니 같이 규제하면 될 수 있겠다는 예측은 했다”면서 “갑작스러운 발표에 당황하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묻

는 전화가 많았다”고 전했다. 규제 전 계약을 서두르려는 수요도 있었다. 그는 “앞으로 대출이 어려워지니 가능한 매물을 찾아 빨리 계약하려고 했다”고 귀띔했다.

기흥역 일대는 최근 동탄의 대체지로 주목받으며 매수세가 붙었다. 동탄 집값이 단기간 급등하자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기흥으로 눈을 돌린 수요가 유입됐다. <2면에 계속>

/서재림 수습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

### AI시대 성공적 노후 위한 자산전략

최근 우리 사회는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 삶의 질 향상으로 평생 자산관리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100세 플러스 포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토대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오는 7월 9일(목요일)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 및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AI 시대에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상속, 증여 전략, 부동산, 금융자산, 대체투자 및 미래투자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2)
- ◆ 주 제 :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
- ◆ 일 시 : 7월 9일(목)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1시40분~2시)
-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문 의 :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 흙플러스, 회생안에 자금방안 못 써

청산·회생 운명의 일주일  
협력사들, 회생 탄원 제기  
경영진 검찰수사 강화 요구

흙플러스가 기업 청산과 회생을 가르는 운명의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핵심인 신규 자금 조달 방안은 여전히 마련하지 못했다. 협력사들은 회생을 촉구하는 탄원을 제기했고,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흙플러스는 지난달 30일 서울회생법원에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사는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점포를 126개에서 67개로 줄이고 흙플러스익스프레스사업부를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비용 약 1조2000억원을 절감했으며, 영업 정상화 시 연간 800억원, 3년 내 15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업성 개선 내용을 회생계획안에 담았다.

그러나 회생의 성패를 좌우할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조달 방안은 여전히 공란(빈

칸)이다. MBK파트너스는 기존 자금 투입과 지급보증을 합쳐 총 4200억원 규모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김병주 MBK 회장의 사제 출연과 개인보증 등 대주주의 추가 책임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7월 3일로 예정된 기결 기한 연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사들의 회생 촉구도 이어졌다. 이날 흙플러스에 상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4603개 협력사는 국민신문고에 ‘흙플러스를 지켜달라’는 탄원을 제기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서명지를 전달했다. 협력사들은 “매출의 절반 이상을 흙플러스에 의존하는 업체가 적지 않아 파산 시 중소기업 연쇄 도산과 대규모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지원과 메리츠의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흙플러스 전담 채권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흙플러스 대표에 대한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3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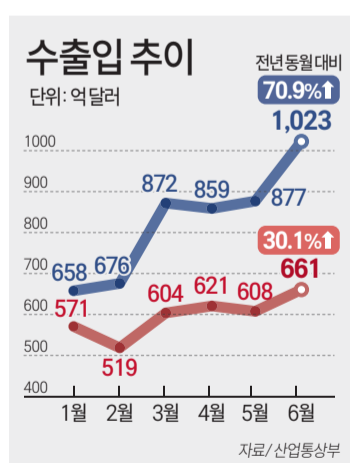
metro

## 사상 첫 1000억 달러... 韓 수출 ‘새역사’

산업부, 6월 수출입동향  
전년 동기대비 70.9% 증가  
獨·中·美 이어 세계 4번째  
무역수지 361.5억 달러 흑자

대한민국 수출이 역사상 처음으로 월 수출 1000억 달러 고지를 밟았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기업용 SSD 등 IT 기기의 폭발적인 성장에 수출 성장을 견인했다. 월 수출과 무역흑자 규모 모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며, 상반기 전체 실적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전 세계 수출 5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0.9% 증가한 1023억 달러(약 158조 4627억 원)



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우리나라 무역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적으로도 독일(2006년 10월), 중국(2007년 6월), 미국(2007년 10월)에 이어 네 번째다.

이 기간 수입은 30.1% 증가한 661억 달러(약 102조 5542억 원)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361억 5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무역수지 역시 사상 처음으로 월 300억 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로써 우리 수출은 13개월 연속 플러스, 무역수지는 1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조업입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 역시 59.5% 증가한 45억 40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시가 싸아 올린 반도체 신화... 6월 한 달에만 448억 달러 기록** 이번 ‘수출대박’의 일등공신은 단연 반도체와 IT 품목이다. 6월 반도체 수출은 D램 고장가격 반등과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전년 대비 199.5% 폭증한 448억 2000만 달러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미국 에너지부의 전력 연결사 기간 단축 요청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가 조기 운영 단계에 진입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다. 핵심 메모리인 DDR5 16Gb 고정가격은 올해 4월 35.5달러에서 5월 37.5달러, 6월 40달러로 치솟으며 단가 상승을 견인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도 고부가 저장장치(SSD) 수요가 몰린 컴퓨터 수출 역시 전년 대비 308.8% 증가한 54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 역시 신제품 효과로 51.9% 증가한 15억 5000만 달러로 8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

<3면에 계속>  
/서재림 수습기자 hys@metro



metro

### 메트로 한줄뉴스



- ▲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고용진 전 의원 임명 /사진 뉴시스
- ▲ 李 “내부 단합 중요” 文 “개혁진영 더 큰 단합 이뤄야”

- ▲ 정부, G20 세르파 참석...정상회의 추진방향 논의
- ▲ 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지원...950억원 투입

- ▲ 소방청 조직 내 갑질 근절...익명 제보시스템 운영
- ▲ 선거관리위원회 “하반기부터 선거인 수 100% 원칙 적용”